

## 우한 폐렴 안 걸리는 방법

어느 날 감기 환자 1명이 병원에 찾아온다. 그런데 갑자기 그 환자가 죽고 그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들이 죽는다. 죽음의 그림자는 그 주변으로 빠른 속도로 드리워진다. 감염 1일째 2500만 명이 감염되고, 감염 일주일째 4500만 명이 죽는다. 감염 30일째 도시 기능 정지, 감염 90일째 국가 폐쇄, 약마의 바이러스가 일본을 공격했다'는 전세계의 속보와 함께 '블레임'은 일본을 넘어 전 인류를 위협하고 전 세계는 일본 접근을 금지한다. 무차별 공격 속에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지고 결국 전 인류는 2011년에 멸망하게 된다. '블레임:인류멸망 2011'이라는 영화의 스토리이다.

우한 폐렴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 또한 1만 명을 넘어(2월3일) 사스 때 피해를 넘어서고 있고, 전염병 전문가들은 세계적 대유행병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염속도가 엄청 빠르고 치사율도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여부에 인류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바이러스는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을 미리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협하다. 또한 공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의 환경파괴로 바이러스가 쉽게 창궐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오염원은 인간이다. 인간의 생각의 물질이 공기속으로 퍼져 만물을 오염시킨다. 인간이 뿜어내는 뉘스 기운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치사율을 가진 바이러스가 반드시 발생한다. 인간의 생각도 일종의 에너지다. 인간에게서 방출되는 생각의 에너지는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가고, 만물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쁜 생각을 하면 만물을 악화시키며, 좋은 생각을 하면 만물을 강하게 한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무슨 영인인가? 바이러스는 질병을 일으켜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바이러스는 사망의 영(물질)의 조종을 받는다. 사망은 마귀의 권세이므로 바이러스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존재해온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의 하나이다. 바이러스가 계속 번이를 일으키고

주시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부여되고 있다. 구세주란 사망을 이긴 인류 역사 이래 최고로 위대한 존재이다. 구세주란 어떤 병마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되지 않는 존재이다. 그러나 구세주는 승리제단 신도들의 병마는 대신 담당해주셨는데 그것은 구세주가 승리제단 신도들을 영생의 존재로 만들기 위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구세주는 일부러 죄인들의 병마를 담당할 지라도 금세 병마를 물리쳐 없애버리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이를 환언하여 말한다면 면역력이 매우 강한 존재이므로 어떤 병균에 감염되더라도 즉시 회복 가능한 존재라는 뜻이다.

**면역력이 강한 자가 영생을 얻게 돼**  
또한 구세주는 감로를 만민들에게 부여하는 능력이 있어 그 감로를 받은 자들은 점점 면역력이 강한 존재로 화해서 결국에는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는 불사체로 변하게 되어 있다. 영생은 요술처럼 똑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생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영생의 자격이란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존재가 되어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석가 등 어떠한 존재를 믿어서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반드시 자신이 쟁취하여야 할 대상이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감로에는 어떠한 마귀신도 대항할 수 없다. 아무리 강한 마귀 영이라도 그 앞에서는 박살이 난다. 무적장수의 영이다. 완성자 구세주가 출현하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 바이러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다. 구세주를 알지 못하는 자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77>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논할 수 있는 문제다.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망(死)이요 사망(死)의 권세를 잡은 신(神)은 마귀(魔鬼)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復活)을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마귀는 생명(生命)과 반대되는 신이요 사망의 신인고로 죽은 자는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 행복한 노년 준비

**각종 질환의 근본 요인인 혈액변질의 이해**  
지금까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호부터 나이 들어 찾아오는 대표적인 질환인 혈관질환, 고혈압, 관절염, 심장병,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 등과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 질병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만성적이며, 많은 노인들이 이들 질환을 복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는데 대부분 완치불능이라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이 글을 꾸준히 정독하면 고질적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쾌활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모든 질환으로부터 자유로려면 피(혈액)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붉은 액체의 물질로만 이해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혈액이란, 혈구와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혈장은 주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유지에 필수적인 혈액응고인자, 전해질 등이 포함됩니다. 혈액은 옅은 노란색인데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혈액 속에 포함된 적혈구가 붉은색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혈액 속에 포함된 적혈구는 약 25조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전체 혈액량은 약 4-6L 정도이며, 체중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적은 양의 출혈이 있을 때 혈액 속을 순환하는 혈액량은 자율적으로 조절되어 전체 혈액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대량의 물을 마셨을 때, 수분은 곧 혈액에서 조직으로 나가거나 신장으로부터 배설됩니다.  
혈액의 주된 역할은 각종 물질의 운반이며, 폐에서 섭취한 산소나 소화관에서 흡수한 영양소 등을 전신으로 보내고

강증산 선생은 “괴질은 한국에서 처음 발병하는데 병검이 관주, 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魚肉之境)이요, 군산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도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시발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된다(道典7:41)”라고 말했다.  
또한 조희성 구세주께서도 “이제는 걸어가다가 그냥 푹푹 쓰러져서 죽는 시대가 온다. 조금 있으면 마귀가 전멸되는 것을 알고 마귀가 한 생명이라도 삼켜버리고 같이 죽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다. 십 리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때가 온다고 격암유록에 쓰여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인다고 그랬다. 격암유록에는 세밀하게 쓰여 있다. 피가 시켜 멀게 되면서 응고가 되어 굳어버리니까 심장마비로 뻗어서 죽는다. 그런 시대가 꼭 오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나타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 괴질에는 멸마경이 최고

(2000. 10. 24 말씀)라고 하셨다.  
**삼년 흉년 2년 괴질**  
격암유록에는 말세에 삼년간 흉년이 들고 2년간 괴질이 든다고 예언되어 있다.  
三災八亂 併起時에 時를 아노 世人들이 三年之凶 二年之疾 流行疫疫萬國時에 삼재와 팔란이 함께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삼년간의 흉년 일과 이년간의 괴질이 유행하는 돌림병이 만국을 휩쓸 때에 吐瀉之病 喘息之疾 黑死枯血 無名天疾 朝生暮死 十戶餘一  
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하는 병과, 피가 굳어져서 까맣게 타서 죽는 이름 모를 천질(天疾)로서, 아침에는 살아 있으나 저녁에 죽음으로 열 집에 한 집만 살아남겠구나(격암유록 가사총론歌辭總論).  
무서운 예언이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열 가구 중 한 가구만 살아남는다고 예언되어 있다.  
**박멸소탕 기도로 괴질 범접 못해**  
이렇게 무서운 괴질이 돌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격암유록에는 구세주(정도령)가 창안한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예언하고 있다. 마귀 죽이는 기

도 즉 멸마경(滅魔經)을 외우면 괴질이 없어진다는 예언이다.  
**當服淹痲常誦呪 萬傀皆消海印일세**  
인류의 어머니 구세주(정도령)님께 복종하고 정도령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의 마귀 마음'을 없애주는 기도를 항상 하면서, 해인(海印)을 받아먹어야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예언이다.  
어떠한 괴질이 오더라도 멸마경(滅魔經)을 외우면 퇴치가 된다. 절대 박멸소탕 기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박멸소탕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도 아니다. 구세주께서 마귀 죽이는 영력(靈力)을 불어넣은 기도이다. 사람이 이 기도를 외울 때 구세주 분신이 오셔서 마귀를 죽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언제 마귀가 괴질을 일으킬지 모른다. 기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점령하는 과정을 담은 책  
하나님은 당신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을 읽기 원하는 분들은 주소를 적어서 아래의 번호로 문자 또는 이메일 주시면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도서출판 해인 담당자 010-3019-1440, bookman5@naver.com

**본부제단 1월 성적 1등 5지역**  
개인 1등 이만선 장로

지회장: 신순이  
2등: 6지역(지역장: 안병진, 지회장: 석선자)  
3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구역 1등: 59구역(6지역)  
2등: 50구역(구역장: 김두식)  
3등: 21구역(구역장: 안명숙)

2020년 2월 4일 화요일 구역장 회의에서는 2020년 1월 성적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지역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개인 1등: 이만선 장로  
2등: 신순이 권사  
3등: 김두식 승사